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 만나니 '말이 필요없네'



S·O·M 피아니스트 김다인



S·O·M 드러머 김훈

S·O·M 밴드 김훈·김다인씨

드럼·재즈피아노 연주로 영화 재미 더해

스크린 속 주인공들은 말이 없다. 음악도 없다. 상황을 설명하는 짝막한 자막만이 있을 뿐이다. 오래된 무성영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라이브 연주다. 주인공들의 대화나 우스꽝스러운 몸짓, 티격 태격 싸움이 벌어질 때 다양한 악기들이 들려주는 연주는 관객들을 즐겁게 한다. 영화 속 상황과 음악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때 쾌감도 느껴진다.

올해로 10화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무성영화와 라이브 공연이 어우러진 '시네마 콘서트'다. 영화의 극적 흐름에 맞춰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는 기획이다.

광주에서는 문화 그룹 '순수'가 진행한 '양림의 소리를 듣다' 프로젝트에서 무성영화와 라이브 연주가 결합된 공연이 첫 선을 보였다. 호남신학대에서 드럼을 전공한 김 훈(33)씨와 재즈 피아노를 공부한 김다인(28)씨가 구성한 프로젝트 밴드 S.O.M(Sound Of Movie)가 그 주인공이다. 김 훈씨는 4인조 인디밴

의 행동에 관객들이 더 공감할까 고민하죠."(김다인)

어쨌든 점도 많았지만 첫 연주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처음 접하는 형태의 공연이라 관객들이 무척 재미있어했고, 관객으로 왔던 선생님의 요청으로 중학교에서 공연도 했다.

"재즈가 예전보다는 많이 대중화되면서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지만, 아직도 대중가요 등에 비해서는 미약한 편이죠. 그런데 무성영화 연주를 할 때면 정말 관객과 함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웃고 반응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김다인)

"주인공들이 넘어지고, 부딪치고 맞는 장면 등에 액센트를 넣을 때 정확히 그 장면에서 반응하면 희열도 느껴요.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그대로 탄성으로 터져 나올 때 저희도 그 에너지를 받아요. 다른 어떤 공연보다 저희 스스로도 흥미롭고, 무엇보다 공연 내내 행복해요."(김훈)

28일 '양림의 소리를 듣다'

찰리채플린 육아일기 '키드'

101년 오웬기념각서 공연

드 '훈훈한 성지'에서 드럼을 맡고 있으며 김다인씨는 광주에서 재즈 공연 무대에 서다 현재는 서울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두 사람이 연주 제안을 받은 건 지난 2013년이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공연 형태가 낯설기는 했지만 과감하게 도전했다. 선정된 영화는 버스티 키튼의 '셜록 주니어'였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난감했죠. 다인 이랑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아이디어도 없고 주구장창 영화만 계속 봤어요. 피아노 앞에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영화 장면 장면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만들어 가고, 또 영화 화면에 대입해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나갔죠."(김훈)

"이런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점이에요. 장면 장면과 어울리는 멜로디를 만들고 편곡을 하고 드럼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재미있어요. 작업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영화 속 인물들

두 사람은 지난해에는 헤럴드 로이드의 '신입생'을 공연했다. 올해는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즌 3' 첫번째 공연으로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키드'를 공연한다.

우연히 버려진 아이 존을 맡게 된 떠돌이 찰리의 눈물겨운 육아 이야기를 그린 '키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이다. 두 사람은 귀여운 꼬마 주인공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음악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영화 '키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버리는 장면, 꼬마를 괴롭히는 동네 아이의 모습 등이 재미있게 표현됩니다. 기대하세요."

'키드' 상영은 광주 공연 문화의 시발점으로, 올해 101년 된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공연이 열려 더욱 의미있다. 평상시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이정현씨가 진행을 맡아 건물과 관련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한편 순수는 올해 양림동에서 5차례 주재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에서 베틀시장과 거리 공연이 어우러지는 정기 모조지를 진행한다. 무료 관람. 문의 062-651-09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키드'.



지젤 춤사위에 빠져볼까

시립무용단 28·29일 문예회관

UBC 엄재용·김채리 커플 출연

공연 전 신순주 감독 '발레 특'

작품의 1막 마지막 부분.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이 낮이 나간 채 춤을 추는 장면은 '지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그 어떤 발레 작품보다 드라마적 요소가 강한 '지젤'은 객석과의 감정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시립무용단이 올 첫 작품으로 19세기 낭만 발레의 대표작 '지젤'을 선택했다. 28~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1841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초연후 이후 전 세계 극장에서 꾸준히 공연되는 '지젤'은 발레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다.

'지젤'은 2막으로 구성돼 있다. 시골처녀 지젤은 신분을 숨긴 귀족 알브레히트와 사랑에 빠진다. 알브레히트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져 죽음에 이른 지젤은 숲속을 지나가는 남자들을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만드는 윌리(윌리·체너퀴신)가 된다. 알브레히트는 지젤의 무덤을 찾아왔다 윌리들의 포로가 되지만 지젤의 사랑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지젤'은 무엇보다 처연한 몸짓과 감성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2막에서 튀튀를 입은 윌리들의 군무는 이 작품의 드라마와 테크닉을 동시에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19세기 낭만발레의 오리지널 무대를 충실히 살려낸 키로프 발레단 버전의 '지젤'을 원작으로 삼아 신순주 예술감독이 재연무했다. 올해 신감독이 처음 올리는 작품으로 신 감독은 취임 후 우스베키스탄 출신 발레 마스터 쿠프리 에프 루스탐씨와 함께 작품을 준비해왔다.

이번 공연의 지젤과 알브레히트 역은 유니버설 발레단(UBC) 수석무용수 엄재용·김채리 커플(28일)과 광주시립무용단 간판 무용수 구윤지·강진구가 맡는다.

시립무용단은 지난 1984년 초연 후 지금까지 7차례 관객들을 만났다. 올해 버전에서는 의상을 새롭게 교체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한편 이날 공연전에는 신순주 예술감독이 진행하는 '발레 특Talk' 행사가 오후 6시30분부터 40분간 대극장 옆 리셉션홀에서 열린다. 어렵게 느껴지는 발레를 좀더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리 배우보는 프로그램으로 주제는 '지젤: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완성'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28회 광주시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제28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일상'을 출품한 이재동(서울)씨가 한국화 부문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에서 심사위원회의(위원장 오건택)를 열고 한국화, 서양화, 미디어, 공예, 문인화, 서예 등 6개 부문 6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10개 부문에 모두 1419점이 출품됐으며, 모두 782점(특선 227점, 입선 555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국화 대상 이재동 작 '일상'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서양화(수채화 포함) 오관영(광주) '생-있다' ▲미디어 김기범(광주) '스트라이프 콤플렉스' ▲공예 강은영(광주) '웃이상의 그 무엇' ▲문인화 이동선(광주) '맑은바람(죽)' ▲서예 조은옥(광주) '성산별곡' 등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12일 오후 4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6월 12~16일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화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증진회

한의학박사 임상 30년 전문진료교수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